

# 여수시, 수산자원 회복위해 나섰다

### 감성돔 등 165만미 방류 등 13억여원 규모 이달부터 추진 돔류·전복·바지락·꼬막·능성어 등 고부가가치 11종

여수시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돔류와 전복 등 고부가가치 품종 165만여미를 방류한다.  
시에 따르면 부가가치가 높은 11종의 종자(종패) 방류를 포함한 13억여원 규모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주요 사업은 수산종자매입 방류 사업, 마을앞바다 조성사업, 바다복합 유지관리사업 등이다.  
돔류·전복·바지락·꼬막·능성어 등 고부가가치 11종의 품종을 방류하는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과 전복·바지락·꼬막 3만미를 방류하는 마을앞바다 조성사

업에는 각각 3억원이 투입된다.  
바다복합 유지관리사업은 전복 3만미를 연안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다.  
개조개 12만미와 해삼 53만9000미, 능성어 3만2000미를 방류하는 개조개복원 시범사업과 해삼씨뿌림

사업,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 사업도 추진된다. 사업비는 각각 3000만원, 2억7500만원, 1억5000만원이다.  
첫 방류 품종은 전복 8만여미로 지난 9일 화태·역포 해역에서 이뤄졌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수협, 어촌계, 어업인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방류 품종과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 회복사업이 어업인의 소득을 창출하고 어촌 공동체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장흥군, 지역 장애인 대상 모의투표 체험 내달 13일 지방선거 앞두고 장애인종합복지관서 진행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분관(관장 이일범)은 6.13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쉽게 이해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체험은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을 맡았다. 이번 모의투표 체험은 장애인들의 정치참여 의식을 높이고 선거를 통한 주권행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체험 전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이해와 투표참여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모의투표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소에서 사용되는 투표장비를 활용하여 이뤄졌다.  
한 모의투표 참여자는 "장애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 모의투표체험을 통해 정확하게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6년 개관한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분관은 지역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김홍필 기자



## 장흥군, 농가소득 효과 '작약' 벼농사 5배 수익

장흥군 용산면 승전리 약용작물 재배단지 작약꽃이 만발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꽃이 아름다워 힐바움으로도 불리는 작약은 관상용으로도 재배되며, 뿌리는 진통, 민혈, 타박상 등의 약재로 쓰인다.  
장흥군에서는 2015년부터 지리적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농기계 운용이 어려운 논밭을 대상으로 약용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현재 장흥군에서는 50여 농가가 작약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약 40ha에 이른다.  
작약은 단위면적 당 수익이 벼농사 대비 5배에 이르는 고소득 작물로 3년에서 4년을 재배하면 출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작약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관 작물로도 활용해 농촌체험관광 등 6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 '신비한 바닷길 열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내일부터 19일까지...70여개 체험·전시 등 풍성  
제40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바닷길 열림'을 주제로 오는 16일(수)부터 19일(토)까지 4일 동안 개최된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의 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로 길이 2.8km에 걸쳐 폭 40여m의 바닷길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개최된다.  
진도군과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축제 기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수십만명이 방문해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다.  
특히 올해는 바닷길 열림과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축제 개최를 목표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 기획 ▲글로벌 축제 명성에 맞는 걸맞은 선제적 홍보 ▲지역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과 연계한 소득 창출형 축제로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5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걸맞게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를 주제로 ▲신비의 바닷길 체험·만남 ▲바닷길 만남 영등살 놀이 ▲새벽 빛 야간 바닷길 프로그램 등이 대폭 강화됐다.  
또 주제 행사로 ▲뽕할머니 소망대 잇기 ▲뽕할머니 전설 재현 ▲300명이 참여하는 북놀이 퍼레이드 등이 펼쳐진다.  
강강술래, 진도 씻김굿 등 진도 무형문화재 공연과 문화교류 공연, 진도문화예술단체 공연 등이 4일동안 실시되며, 야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념 축하쇼와 전국 청소년 프리스타일 랩 콘테스트 등이 열린다.  
해상에서는 해상 선박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조도 닻배노래 공연, 해상 풍물 뱃놀이 등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행사는 ▲음악여행 ▲전통 음식 체험 ▲씨름·립보대회 ▲컬러플 진도 ▲미라클 버블폼 슬라이드 ▲EDM 울나잇 스탠드 쇼 등이 개최된다.  
관광객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만남 대국민 토크쇼 '내일 좀 들어봐' ▲진도 전통 민속 주막 ▲진도 이리랑 부르기 콘테스트 ▲미라클 라이브 카페 ▲모도 섬마을 음악회 ▲가족사랑 사진 콘테스트 ▲뽕할머니 가족 코스프레 퍼포먼스 ▲국제 화술 심포지엄 등이 열린다.  
해안도로 구간에서 진도무형문화재 체험과 명인에게 배우는 서화·서예 체험, 진도개 체험, 신비의 해수 족욕 체험, 뽕할머니 소망대 달기, 전통 약기 만들기 체험, 관광 기념품과 진도 농수특산물 시음·판매 등이 수시로 개최된다.  
축제 기간 동안 진도군의 주요 관광지인 문화 유적지를 관광버스로 여행할 수 있는 '진도 관광버스 투어'가 수시로 운행되며, 시골 마을로 가는 농어촌 체험도 1박 2일 동안 열려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포도존 주차장 구간 표시, 수유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과 외국인 전용 렌터카, 통역 안내요원 배치 등 관광객과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진도군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바닷길 열림이 열리는 시간대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축제 공간을 전통 민속문화공연, 전시, 체험 등 테마별로 운영해 매년 국·내외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바닷길 열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며 머물고 갈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여수시, 외국인주민 운전면허교실 '개강'

여수시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교실을 13일 개강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주민 운전면허교실은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총 8회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도로교통 법규, 운전자 준수사항, 문제풀이 등이었다.  
특히 시는 외국인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등 외국어 교재를 무료로 제공했다.  
교육에 참석한 베트남 국적 전방 취업자는 "한국의 어려운 교통용어와 베트남과 다른 교통법규를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주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은 취·창업활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의 업무능력 향상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6월 한 달간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운전면허 필기시험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